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속장인도자 나들이를 23일(화) 용문산으로 갑니다. 교회에서 아침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창립 30주년 기념행사가 25일(목) 오후4시부터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열립니다.

11월 첫째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나온 날을 차분히 돌아보며 감사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뜰에 핀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을에 피는 꽃들을 보며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당 봉사 : 안정숙 진정숙 박미란 이용숙 최희영 유영남 김종술  
 다음 주 식당봉사 : 박홍재 차혜심 허명선 정연희 한상경 정선희 이광욱  
 오늘설거지봉사 : 이국노 김민화 조선환 강인숙  
 다음주설거지봉사 : 이광욱 한기택 이준하 김영아  
 떡 대 접 : 장원호 최성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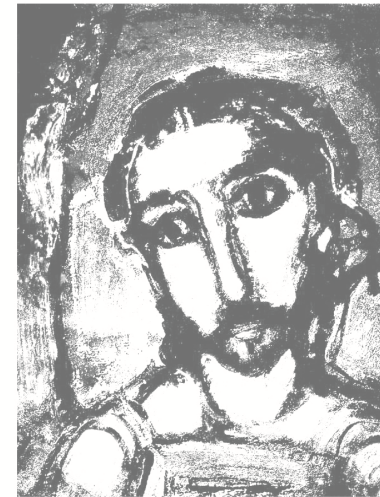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매일 새롭게 생기는 높은 건물들이 산과 강과 하늘을 가리듯,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가립니다. 주님, 그럴수록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기도의 호흡을 더욱 깊게 하며 바른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구도자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옆치락뒤치락하는 세상 속에서도 순리를 따라 자기만의 빛깔을 발산하는 자연처럼, 쉽게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진리를 따라 살아 그리스도인의 빛을 비추게 해 주십시오. 세월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권순 권채영 한훈식 김경혜 김범진 김미현 김재환 김진선 김정길  
 최숙화 김혜권 박재임 김혜영 박병구 김정애 박숙영 박옥순 배삼순  
 서수진 양상철 박재란 윤수진 윤정덕 구성실 윤주원 최윤선 이근식  
 신영신 임주빈 최현옥 조병익 조정연 조병주 조순덕 최윤희 한규숙  
 허호범 박성실 홍춘숙 무명

### 감사헌금:

김대규 박경애 문금석 박숙영 방문성 박혜경 백혜숙 이한림 김명희  
 정선희 조순덕 나오미2,3선교회 무명7

### 녹색꿈헌금:

강순배 김경혜 김범진 김미현 김중수 이순정 민병배 문현미 박석희  
 조항미 박솔잎 박송이

### 생일감사헌금:

박석희

장혜숙	백혜숙	송임회	박영희
노순옥	박성희	노은옥	이준림
최희영	최경미	김명순	최희영
장영숙	신영신	박옥순	장영숙
정경례	진정숙	정선희	조병주
박홍재	곽권희	허정운	조영순
박효선	허정금	이순정	배삼순
이형숙	권미숙	구성실	오복순
안홍숙	오현정	안홍숙	권명자
정영선	서정순	서정민	오현진
박혜경	조항미	김민화	송양현
김재흥	오자영		정현숙
이범석	이근식		
손성현	곽상준		

마음으로 읽는 글

## 갈등은 [       ] 이다

- 갈등은 선택이다/ 갈등은 빗방울이다
- 갈등은 토네이도다/ 갈등은 진학이다
- 갈등은 게임할까 공부할까다
- 갈등은 남북분단이다
- 갈등은 외적갈등대립이다
- 갈등은 새로운 시작이다
- 갈등은 엄마와 내 생활이다
- 갈등은 내일 아침이다
- 갈등은 생각의 차이이다
- 갈등은 쪼개짐이다
- 갈등은 한 순간이다
- 갈등은 의견충돌이다
- 갈등은 관심이다
- 갈등은 의사소통이다
- 갈등은 평생 피할 수 없는 것이다
- 갈등은 문이다
- 갈등은 말풍선과 물음표다/
- 갈등은 버스정류소다
- 사람들이 없는 곳엔 버스도 없을뿐더러 정류장도 없지
- 이처럼 갈등은 언제나 사람들이 있다면 따라오는 그림자와 같지

- 서울의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이 '평화수업'에서 이야기한 갈등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헌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를 위한 주님의 가르침에 항상 귀를 기울이며 사십시오. 가르침대로 거짓과 악행을 버리고 진리를 붙들고 선행에 힘쓰십시오. 성실한 자세로 주님의 뒤를 따르며 사십시오.

아멘. 작은 부정한 이득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좋은 말을 할 뿐 바른 삶을 살지 못한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꾸짖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바르고 깨끗한 삶을 위해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신앙의 요체 / 김기석 목사 기도 : 장혜숙 권사

다음 주 예배 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범석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윤석철 장로	이진영 선생 이증자 집사

10월	영접위원	방문성 권혁순 박규석 권미숙 박경선 박혜경
	헌금위원	조병무 이형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믿음으로 읽는 글

### 진리의 가르침

덧없이 사라지는 인물들이나 말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로부터 배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시94:12). 생각과 감각은 종종 우리를 속이고 진상을 분별치 못하게 합니다. 어둠에 감춰진 것들에 관해 대단한 논쟁을 벌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전3:9-11). 그런 것을 모른다고 해서 심판의 날에 큰 책망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하고 유익한 것은 간과한 채 신기하고 해로운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시115:5). ...

사람에게 자아를 높이려는 마음이 작아진다면, 노력하지 않아도 더 많은 일과 높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위로부터 지적인 빛을 받기 때문입니다(마11:25, 눅10:21). 순결하고 성실하고 견고한 심령은 많은 일을 할지라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는 사람은, 마음이 고요하고 잠잠하기에,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맹렬하게 일어나는 죽지 않는 감정보다 그대를 더 괴롭히고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하고 경건한 사람은 밖으로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 자기의 내면을 정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악한 욕망에 휩쓸리지 않으며, 오히려 올바른 이성애 따라 일을 처리합니다. 자신을 이기기 위해 땀 흘리는 사람보다 더 큰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을 정복하고, 날마다 더 강해지며, 더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현세에서 완전하다고 하는 것들은 모두 불완전한 부분을 갖고 있고, 우리의 지식 역시 모호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일이 열심히 지식을 추구하는 일보다 하나님께 이르는 더 확실한 길입니다.

그렇다고 학식을 닦거나 순전한 지식을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학식과 지식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며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선한 양심과 덕스러운 삶을 언제나 먼저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선한 삶보다 지식을 얻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스스로 현혹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

### 지나친 갈망을 다스리라

무엇이든 지나치게 갈망하면 마음속에서 동요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교만한 사람과 탐욕을 품은 사람은 결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은 모두와 더불어 평화로이 살아갑니다. 자신에 대하여 완전히 죽지 않은 사람은 쉽게 유혹에 빠지고, 작고 하잘 것없는 일에도 잘 넘어집니다.

심령이 연약한 사람, 욕정에 따라 사는 사람, 감각적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욕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멀어질 때는 괴로움을 느끼고, 누가 자기를 반대하면 쉽게 화를 냅니다.

만일 사람이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했다 칩시다.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불안해질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욕에 굴복한 셈이고, 이는 정작 자기가 찾는 평안을 얻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참 평안은 정욕에 굴복할 때가 아니라 저항할 때 찾아옵니다.

따라서 세상적이고 외적인 일에 중독된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영적이고 신실한 사람에게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